

교직이수로 교사되기

불어불문학과 박○○ (2020. 02 졸업)

기본 스펙	평균 평점	4.16
	외국어 성적	영어 : TOEIC 945, TOEIC Speaking 170 프랑스어: DELF B2
대학 생활 내용	인턴 또는 현장실습	KBC광주방송(현장실습) International Internship Program 교류(TESOL Training International)(국외현장실습)
	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자격증	교원자격증(영어), 교원자격증(프랑스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직무관련 아르바이트	영어학원 강사(중고등부), 지역영어방송국 작가, 수행통역(영어)
	기타	영어회화동아리 6년 간 진행

저는 도지역에 있는 위탁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립학교 임용을 준비하시는 학생들께는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교직이수의 과정

저는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불어불문학과에서 불어 교수법을 전공하고 교직이수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남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영어영문학과를 복수전공하여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1) 전공과 교직 이수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2학년 1학기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일반적으로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교직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학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2) 영어영문학과를 ‘복수 전공’하여 교직이수를 하기 위해서 영어영문학과에서 요구하는 조건(학점, 필수 이수과목 등)을 맞추기 (저는 복수 전공 신청이 가능하기 전부터 미리 필수 이수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 3) 주전공 교직이수와 복수 전공 교직 이수가 확실해진 이후에는, 온 대학생생활을 전공학점(전공 당 50학점)과 교직 관련 필수 이수 과목을 수강하며 보냄

교직 이수를 고민하는 후배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같이 저학년 때부터 교직 이수가 간절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냥 하나의 좋은 스펙이 될 수 있기에 교직 이수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교원자격증이 성실한 대학생생활을 했다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시즌에 회사(공기업, 사기업 등)를 지원할 때 많은 회사가 여러분이 지원하는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수강한 과목/강의를 적으라고 요청합니다.

교직이수를 하면 전공과 교직이수과목을 수강하느라 다른 과목을 들을 여유가 비교적 적습니다. 특히 저같이 복수 전공까지 교직 이수를 하는 경우, 회사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여유가 정말 없습니다. 임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시 회사에 취업하려고 준비하던 시기에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또한 교직과목은 과목당 2학점으로 매 학기 시간표를 짤 때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학점은 작지만 시험과 과제는 똑같이 많습니다.

결론은, 교직이수의 과정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얼마나 교원자격증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꿈이 정말 간절한 학생들에게 교직이수의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제 주변에도 좋은 성적의 학생들이 함께 교직이수를 시작했지만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임용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매주 적습니다.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으니 교직이수 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교사의 꿈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신중하게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2. 인턴십 및 직무 관련 경험

대학 생활 동안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모든 경험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지금 보니 모두 교사로 향하는 저만의 길 같기도 합니다. 인턴십은 전남대학교와 연계된 인턴십만 참여했습니다.

1) KBC광주방송 인턴십 + TESOL 관련 인턴십

2학년 동계 학기에 우연히 KBC광주방송 인턴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에 사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섭외하여 광주를 탐방하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지역 영어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고, 결국 다른 임용 고시생과 차별화된 저만의 특징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턴십 내용 후에 작성하겠습니다.

4학년 하계학기에 미국 샌디에이고로 International Internship Program 교류(TESOL Training International)을 다녀왔습니다. 영어교육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TESOL(영어 외의 모국어 사용자들을 위한 영어 교육(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과 관련된 기관으로 지원했습니다. 거기서 학생 관리와 수업 보조 등의 업무를 했습니다.

2) 지역 영어방송국 근무 + 영어학원 강사

지역 영어방송국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근무했습니다. 방송에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교사는 되고 싶지만 임용이라는 시험에 두려움을 가지고 회피하던 시기에 영어를 놓지 않기 위해 선택한 저의 방법이었습니다. 영어 글쓰기와 말하기, 첨삭 등을 통해 영어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를 인터뷰하며 각 입장을 조망하는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근무 경력이 코로나 상황에 놓인 학교를 이해하고, 학교에서 방송반과 영어를 연계하여 영어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강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꾸준히 영어학원에서 중고등부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중1부터 고3까지의 학생들을 모두 대했고, 영어학원 강사로 일을 하며 가르치는 일, 특히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저의 적성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해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3) 기타 (영어회화 동아리 운영 + 수행통역)

저는 2016년부터 지금(2022년)까지 소규모의 영어회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기는 하지만, 마음이 맞는 몇몇 친구들을 모아 영어로 일상을 공유하며 다양한 주제에 맞게 영어로 대화하는 모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포럼의 해외 초청 발제자들의 수행통역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학생들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3. 본격적인 임용 준비 - 1차

졸업 후 임용고시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교사 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임용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초수, 교직이수, 주변에 임용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음, 영어 임용고시생 카페인 'ET의 꿈'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임용과 관련된 영어 원서에 대한 정보나 임용에 관한 정보를 어떤 과목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빼고 전혀 몰랐습니다.

따라서 전공과 교육학 모두 연간 패키지 강의로 수강하였습니다. (여기서 전공이란 영어 임용에 출제되는 과목인 영어교육학, 영어학(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영미문학, 일반영어를 의미합니다.)

1) 전공 관련

전공은 따로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영어영문학과에서 배운 과목들, 특히 영어 음성학, 영어 음운론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통사론이 조금 힘들었는데, 이 부분은 다양한 원서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학 작품은 많이 접해볼수록 좋으니 영미문학 강의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학부생 때부터 임용을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많은 과목을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교재나 프린트도 버리지 말고 다 보관하세요. 학부생 때의 노력과 공부가 다 도움이 됩니다.

초수이기도 하고, 아직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않았기에 1차에서 특별히 도움이 되는 저만의 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의 몇 가지 공부 방법을 적어보겠습니다.

- 1 통사론의 정문과 비문, 그리고 비문인 이유를 적어둔 오답노트 만들고 계속 추가하며 반복
- 2 기입형 문항을 맞추기 위해 영어교육학 glossary 외우기
- 3 기본교재, 심화 교재, 기출문제 무한 반복 (특히 기출문제에 개념이 나와 있는 부분은 3공 바인더에 과목별로 정리해서 계속 외우고 예시를 적고 반복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원서를 정독하기도 하십니다.)

- 4 단어 외우기 (일반영어 지문에 나온 단어와 word smart 단어장을 암기했습니다.)
 - 5 문학에서만 나오는 용어를 리스트로 정리해서 훑어보기
 - 6 모의고사 풀기 (각 강사팀의 모의고사를 한 번씩 풀어봤습니다. 9월에는 일주일에 3일은 모의고사를 풀었지만 점차 내용 암기에 덜 충실해지는 것 같아 시험까지는 매일 각 영역의 문제 2-3개 정도만 풀며 내용 이해를 확인했습니다.)
- 이 방법들 외에 여러 합격 수기들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교육학 관련

교직이수를 할 때도 교육학 관련 과목은 지루해하면서 들었는데 시험을 위해 공부하며 반복하면 점차 익숙해지고 나름 재미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어라서 조금은 편합니다. 7월부터는 전화로 평일 동안 매일 30분씩 교육학 내용을 읽어나가는 짝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요즘은 교육학에서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상황을 제시하고 상황과 관련된 오픈형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오픈형도 제시문을 잘 파악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틀 내에서 답변을 작성해야 합니다. 열심히 이해하고 암기한 후,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 안에서 답변을 작성하면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4. 본격적인 임용 준비 - 2차 위탁 사립

저는 위탁 사립으로 2차 시험을 보았습니다. 위탁 사립이기 때문에 1차는 다른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보았고 2차는 제가 선택한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공립학교 2차와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지도안 작성, 수업시연, 심층 면접, 과목별 평가(학교 자체 영어 시험), 인성검사의 과정을 거쳤고,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도 제출했습니다. 수업시연과 심층 면접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임용고시생 카페나 후기 등에 따르면 보통 교과서의 리딩 파트를 주고 약 20분간 수업시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영어로 수업시연을 하라는 학교도 있고 한국어를 섞어서 하라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어로 20분간 수업시연을 했습니다. 지도안 작성과 면접 준비는 루이스 영어 교원임용 심층면접&수업실연 완벽분석 책, 유튜브 곰썸채널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수업시연을 할 때는 최대한 자신감 있고 밝게 전문성 있는 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디렉션이 주어진다면 디렉션을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의 영어 관련 프로그램을 수업시연 중에 살짝 언급하는 것도 '저 이 학교에 대해 공부해왔습니다!'라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자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아야 하기에 자신만의 색을 녹여내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를 준비할 때에 반드시 해드리고 싶은 말은 현직 선생님들로부터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꼭 꼭 꼭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4-5번 정도는 스터디원들과 평가원 수업실연 기출문제와 면접을 연습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스터디원 선생님들을 만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직 선생님께 받는 직접적인 피드백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덕분에 매일 성장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범대생이든 교직이수생이든 교수님들, 친한 현직 선생님들 또한 학생이었을 때 학교 선생님들께 한 번이라도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합격자 수업시연 영상도 도움이 됩니다.

5. 결론

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가 좋았고 영어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나는 사범대도 아닌데 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합격하기 어렵다는데 몇 년을 해도 안 되면 나중에는 어찌지?’라는 두려움에 졸업 전과 후에 다른 일도 하며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어교사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었고 학교가 너무 좋았습니다.(제 별명은 학교 덕후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니었지만 학생, 영어와 관련된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돈을 좀 벌고 안정되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것보다는 아직 학부생 때 공부한 것도 기억나고, 한국사 자격증 기간도 남아있는 지금 하자라는 생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며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들고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원하던 길이었기에 확신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되려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잖아요. 분명 여러분에게 준비된 길이 있습니다. 저의 이 소박한 취업 후기가 여러분의 대리강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